

전라감영 복원 내년 3월 '완성'

전주시, 핵심건물 선화당·관풍각·내아·연신당 등 공정률 85%

복원공사 시민과 함께 공유, ICT기술 접목 실감형 체험장도 조성

전주 구도심 100만평 문화심장터의 핵심공간인 전라감영이 내년 3월이면 복원된다.

전주시는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공사가 핵심건물인 선화당과 관풍각, 내아, 내아행랑, 연신당 등 5개 건물이 조선시대 옛 모습을 되찾는 등 85%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감영은 오늘날의 전북과 전남,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도 최고의 지방통치행정기구로, 전라감영의 중심 건물인 선화당은 전라감영의 상징인 전라감사가 집무를 보던 정청(政廳)

이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총 104억원을 투입해 선화당과 내아, 내아행랑, 관풍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7동을 복원할 계획으로, 현재 5개 건물이 한옥건물의 마지막 공정인 수장공사를 마치고 담장 및 마당 정비공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또한 나머지 내삼문과 외행랑 등 2개 건물 복원의 경우 복원공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업체를 선정한 상태로, 건축공사 시작 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공사내용 및 방향이 담긴 설계도면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까지 내삼문과 외행랑 건축을 위한 목재 치목(나무 깎기)을 완료한 후 기둥을 세우는 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앞서 시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1921년 도청사 건물과 1956년 도청사 건물의 흔적을 보여주 위한 공간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라감영 복원공사가 전주의 문화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와 함께 전라감영 복원 건물의 실시 설계 안에 대해 실무위원회 및 고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꾸준한 논의를 거쳐 왔다.

또 옛 도청사 건물 철거 이후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의 흔적과 각종 고지도 및 문헌의 기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원형을 찾는 작업에 주력했다.

시는 전라감영 복원에 이어 향후 종남동과 중앙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전주부성 복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동시에, 그간 추진해온 △조선왕조 의례 문화 재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구도심 일대를 찬란했던 조선시대 역사문화를 간직한 역사도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송효철 기자

도내 추석연휴 5대 범죄 44건

살인·강도는 없어 절도·폭력이 다수

나흘간 이어진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북지역은 대형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도내에서는 총 44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살인과 강도 등은 발생하지 않았고, 절도 24건(검거 20건), 폭력 18건(검거 17건), 성폭력 2건(검거 2건)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 22~25일)에 발생한 54건 보다 10건이 감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 도내에서는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

지난해의 경우 98건 발생에 사망 2명, 부상 180명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추석 연휴는 비교적 큰 사건·사고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됐다"면서 "연휴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귀경길 확보 및 치안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

기획부터 시민 참여형 전시까지

독서대전 이색 전시회 '풍성'

10월 4~6일 개최... '일제강점기, 전주 문인의 빛나는 행적' 등 눈길

책 읽는 도시 전주의 독서축제인 전주독서대전이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풍성해진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전주향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전주독서대전'에서 기획전시와 시민 참여형 전시, 연중 프로그램 작품 전 등을 진행한다

주요 전시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 전주문인의 빛나는 행적 △전주 작곡가전 '독자가 박동화' △춘향, 내가 모두 사랑이로구나 열여춘향수필가 △전주자를 노래한 시 '전북문인협회 시화전' △J-스토리랩 전주 창작동화(그림책) △생태 나무전 김선남 '은행나무' 원화 △스타나루 컬렉션 '당신의 이야기' △도시관 연중 프로그램 작품 '당신을 쓰세요' △시민공모전 '책 읽고 쓰는 우리, 독서 사진' △2019 전주 올해의 책 필사 및 도서 전시 등 시민들의 손길로 탄생한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문인협회 시화전 △전주 생태와 함께 어우러질 김선남 작가의 '은행나무' 원화전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그림책 전시 △2018년 출간 도서 전시 등 전주만의 색채를 담은 문화 콘텐츠 전시도 준비된다.

이외에도 전주향교에서는 직접 일상의 질문을 던지며 시민과 사서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노트나무도서관의 컬렉션 '당신의 이야기'도 진행된다. 박용자 전주시 완산도서관장은 "단순한 전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시민들의 참여 작품 전시를 통한 공유의 장으로 구성하고, 직접 참여하여 전시를 완성하는 시민 참여형 전시를 통해 색다른 다채로운 전시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시 프로그램 등 전주독서대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19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jbook.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완산도서관 책읽는도시팀(063-230-18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

출생신고시 통합신청서 제출하면 양육수당·전기료 감면 등 제공

자녀를 출산한 전주시민들은 양육수당과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전주시가 출생신고 시 하나의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산 관련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공통 서비스인 △가정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급여 비용 지원 △다자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비)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주시 자체 출생지원정책인 △종량제 병투 지원 △첫째·둘째아 출생 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다자녀 우대증 발급 등도 별도 신청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서비스는 출생아 부모와 직계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가지고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 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처리결과 확인도 가능하다.

노상목 시 자치행정과장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이 출생신고 후 일일이 개별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누락 사례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70대 노모 폭행 경찰 흉기로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6시에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지팡이로 자신의 어머니(78)를 수차례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38)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

가을 알리며 농익어가는 김제평야



추석 연휴 김제시 김제 평야가 다가올 가을을 알리듯 농익어가고 있다.

(사진=전북사진기자단 제공)

전주시, 올 4억 투입 친환경차량 구매 비용 지원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바꾸면 500만원 정액 전기자동차 구매하면 최대 1500만원... 18일부터 접수

전주시가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비용과 전기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2019년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처음 시행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 사업은 올해의 경우 국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들여 80대의 노후 통학차량을 교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25대의 통학차량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LPG차량으로 전환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 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지난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5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차량)을 폐차하는 동시에 같은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차량 소유자다.

지원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1대당 차량 구매비용의 일부인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 상반기 154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2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공고일인 11일을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최근 2년(의무운행기간)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내역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1대당 최대 1500만원이며

구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판매 대리점을 통해 환경부 전기차 구매 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 전기자동차를 먼저 출고한 뒤 등록하는 순으로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 차량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8월 말 기준 27종의 차량이 해당된다.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사이트(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문석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등 친환경차량 구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2753)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판매 대리점을 통해 환경부 전기차 구매 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 전기자동차를 먼저 출고한 뒤 등록하는 순으로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 차량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8월 말 기준 27종의 차량이 해당된다.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사이트(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문석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등 친환경차량 구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2753)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는 올 상반기 중 토지이용이 발생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토지분할 782필 △합병 86필 △지목변경 104필 △기타 5필 등 총 977필지로, 담당공무원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 타당성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인터넷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구 민원봉사실,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접수기한 내 구청 민원봉사실과 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지가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담당공무원이 감정평가사와 함께 심도 있게 재확인한 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오는 10월 18일까지 서면 통지될 예정이다.

노한형 완산구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세제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 제출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지가행정의 신뢰성 향상 등 행정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드림스타트에서 해당 쿠폰을 발급받아 예약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연중 무료 성장판 검사 지원

전주시가 무료 성장판 검사로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시 드림스타트는 연중 전주다솜아동병원, 미르아동병원, 푸름소아청소년과, 정소아청소년과 등 4개 아동병원과 함께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무료 성장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장판 검사는 설문지 작성과 체성

분 검사, 손과 손목 X-ray 촬영 등을 통해 아동의 최대 성장기와 초경연령을 예측하는 검사로, 성장 지연 및 성조숙증을 조기발견할 수 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중 성장판 검사의 최적기인 만 10세 남아와 만 8세 여아들은 참여 의뢰기관의 후원과 드림스타트의 지원으로